

# 2010년 정기총회 순서

## ■ 1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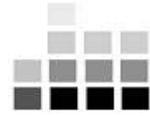
- 인사말
- 축사 1. 6.15남측위원회
- 축사 2. 6.15북측위원회
- 축사 3. 6.15해외측위원회
- 내빈소개
- 6.15민족통일상 시상식

## ■ 2 부

- 개회선언
- 성원보고
- 서기 선출
- 안건 및 회순 통과
- 안건 심의
  - 안건 1 : 감사보고 및 심의의 건
  - 안건 2 : 2009년 사업평가 심의의 건
  - 안건 3 : 2009년 결산 심의의 건
  - 안건 4 : 임원 선출의 건
    - 이임사, 취임사
    - 감사패 증정식
    - 고무, 지도위원 위촉장 수여식
  - 안건 5 : 2010년 사업계획 심의 승인의 건
  - 안건 6 : 2010년 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 서기록 발표
- 폐회 선언
- 대합창(우리의 소원은 통일)
- 저녁 식사

# ...내리비치

6.15남북공동선언 전문	1
10.4선언 전문	2
6.15경기본부 창립선언문	5
6.15경기본부 규약	7
6.15경기본부 체계	11
상임대표 인사말	13
축사 1. 6.15남측위원회	14
축사 2. 6.15북측위원회	15
축사 3. 6.15해외측위원회	16
안전 심의	
① 감사보고 및 심의의 건	17
② 2009년 사업평가 심의의 건	19
③ 2009년 결산 심의의 건	41
④ 임원 선출의 건	42
⑤ 2010년 사업계획 심의 승인의 건	43
⑥ 2010년 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48
참고 1.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규약	49
참고 2.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규약	51



# 6.15남북공동선언

## 6.15 남북공동선언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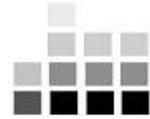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 대 중

김 정 일



# 10.4 선언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 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분쟁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

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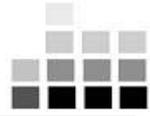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 정 일



# 6.15경기본부 창립선언문

하루빨리 우리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온 겨레의 뜨거운 열망 속에 지난 3월 4일 전민족적인 통일운동기구인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이하 6.15 공동위원회)>가 금강산에서 결성되었다.

<6.15 공동위원회>의 결성으로 우리 민족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강력한 추동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경향각자·각계각층의 다양한 통일 지향의 의지를 하나의 힘으로 모아낼 튼튼한 조직적 담보를 마련하였고, 조국통일의 시간표를 앞당겨 그럴 수 있게 되었다.

<6.15 공동위원회>의 결성은 광복 60년, 6.15 공동선언 발표 5돌을 맞이하는 올해를 획기적이며 전환적인 통일국면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역사적인 전민족의 통일선언이다!

우리민족의 의지로 민족통일의 역사적 대 전환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경기본부(이하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의 결성을 선언한다!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외세에 의해 반세기 이상을 갈라져 고통 받았던 치욕의 역사를 끝장내고 우리민족의 힘으로 다시금 강토와 핏줄을 이어내고자 하는 1천만 경기도민의 절절한 통일 열망을 담아 결성되는 일상적인 통일실천 기구이다.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활동의 원칙으로 삼고 이에 동의하는 경기도의 각계, 각층, 정당, 종교, 사회단체, 인사들이 총 망라되어 결성하는 상설적인 통일운동기구이며, <6.15 공동위원회>의 지역 조직체이다.

광복 60년이자 분단 60년의 지난 세월, 일제강점기 까지 포함하여 한 세기를 우리민족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강요당해왔다.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과 불안 속에 살아야했고, 강대국에 의해 우리민족의 자주권은 유린당해왔으며 민족문화를 꽃피우고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자주권을 회복하기위해 피나는 노력을 다해왔으며, 기어이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평양상봉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키면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창조해 내고야 말았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민족의 자주적 염원에 기초하여 탄생한 우리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담보이며, 자주통일의 시간표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고 공존과 평화의 새시대가 열렸으며, 통일운동은 일부가 아닌 전민족이 함께 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의 결성으로 민족의 힘으로 탄생시킨 6.15 남북공동선언이 밝혀준 길을 따라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단결할 것이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는 분단의 고통이 가장 절절하게 스며있는 지역이다. 그 어떤 도시보다 분단의 장막을 길게 드리우고 있는 지역이며, 분단으로 인해 전쟁의 위협이 가장 심각하게 내재되어 있는 곳이 또한 경기도이다.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우리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한반도에서의 그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반대하며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도적으로 우리 민족의 강도와 자주권을 유린하고자 하는 모든 외세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민족 통일만이 우리 조국의 완전한 평화의 정착이다.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민족 공동의 통일행사들을 기념하고 1천만 경기도민들이 함께 하는 다양하고 대중적인 통일운동,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운동을 일상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며 이 모든 사업이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벌어질 수 있도록 <6.15 공동위원회>의 지역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또한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거족적이며 역사적인 통일대업에 경기도의 제 단체와 인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더욱 넓혀 나갈 것이다.

같은 민족보다 더 큰 동맹은 없으며, 민족만큼 강한 공동체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하기에 민족이 갈라져서는 어떠한 번영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민족이 자주권을 유린하는 외세에 맞서 100년을 싸워온 자주성 드높은 자랑스러운 민족답게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로 총 망라되어 조국통일의 시간표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고 통일민족으로서의 존엄을 세계만방에 떨쳐나가자!

전민족이 함께 하는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에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가 가장 앞장서 나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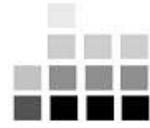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 결성 만세!

6.15 남북공동선언 만세!

조국통일 만세!

2005년 4월 29일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경기본부**



# 6.15경기본부 규약

제정 : 2005. 4. 29

1차 개정 : 2006.3.16

2차 개정 : 2007.3.27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약칭 6.15경기본부)라 한다.

제2조(목적) 6.15경기본부는 민족의 통일강령인 6.15 공동선언 실천을 통해 자주적인 통일조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성격) 6.15 경기본부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정당, 종교,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경기지역의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이다..

제4조(사업) 6.15경기본부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 한다.

- ①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대중적 실천을 전개한다.
- ② 한반도와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전쟁을 반대한다.
- ③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 하에 상호 존중하는 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 ④ 6.15경기본부는 6.15남측위원회 사업에 적극 결합하여 활동한다.

제5조(운영원칙)

- ① 6.15 경기본부는 참가한 단체와 개인의 연대와 합의의 정신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

## 제 2 장 회 원

제6조(구성)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경기지역의 제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 ① 경기지역 단위의 제 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한다.
- ② 지역은 시, 군 단위 본부를 회원으로 한다.

제7조(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①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권리

②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 ① 규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 ② 사업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와 각종 사업에 대해 보고할 의무
- ③ 재정(회비 및 분담금) 납부의 의무

## 제 3 장 회 의

### 제1절 총회

제9조(구성) 최고의결단위로 상임대표 및 참가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10조(소집)

- ① 정기총회는 상반기에 진행한다.
- ② 임시총회는 대표자 1/3이상 발의 또는 운영위원회 결의나 상임대표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 ③ 총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 ① 규약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②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③ 사업 계획 결정 및 사업보고 승인에 대한 사항
- ④ 예산 및 결산 승인에 대한 사항

### 제2절 운영위원회의

제12조(구성) 상임대표 및 운영위원, 특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3조(소집)

-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도록 한다.
- ② 임시회의는 운영위원 1/3이상 발의 또는 상임대표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 ③ 운영위원회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 ① 총회 준비와 상정안건 심의 및 수임사항 처리
- ② 가입, 탈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 ③ 의무금과 특별 분담금 책정에 관한 사항
- ⑤ 공동집행위원장, 상임집행위원장 및 집행간부 인선에 대한 건
- ⑥ 상설위원회, 각종 특별기구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⑦ 고문 및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 ⑧ 예산의 조정과 전용
- ⑨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사항
- ⑩ 기타 제반 일상사업의 계획 및 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제3절 특별위원회

제15조(구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

#### 제4절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제16조(구성과 소집)

- ① 공동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에서 인준한다.
- ② 공동집행위원장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공동집행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 ① 총회 및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 ② 총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준비와 상정안건 작성
- ③ 일상 업무 집행과 관련된 주요 방침 심의, 집행
- ④ 집행위원회 소집
- ⑤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절 집행위원회

제18조(구성과 소집)

- ① 6.15경기본부 소속단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필요시 공동집행위원장회의에서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기능) 6.15경기본부의 제반 사업과 운영에 대한 논의 및 집행

#### 제6절 자문기구

제20조(구성) 각계 원로 및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한다.

- ①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고문단을 둔다.
- ② 각계 지도급 인사들로 지도위원을 둔다.

## 제 4 장 임 원

제21조(임원) 임원은 상임대표, 공동대표, 운영위원, 감사를 말한다.

제22조(선출과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상임대표
  - 상임대표는 경기본부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 총회 및 운영위원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상임대표 궐위 시에는 그 대행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공동대표
  - 지역 본부장(시, 군)과 참가단체 대표로 한다.
- ③ 운영위원
  - 지역본부장(시, 군)과 특별위원장 그리고 가입단체 대표자 가운데서 부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약간 명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 감사
  - 2인으로 하고 사업 및 재정 감사를 년1회로 하여, 매년 상반기 열리는 정기총회에 감

사 결과를 보고 한다.

제2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5 장 사 무 처

제24조 (사무처)

- ① 6.15경기본부의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장은 상임대표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③ 사무처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적정인원의 상근 혹은 비상근 간부를 둘 수 있다.

## 제 6 장 재 정

제25조(수입 및 지출) 6.15경기본부의 재정은 가입단체의 의무금과 후원회비, 사업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총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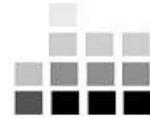
제26조(의무금의 책정) 의무금은 해당 조직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책정한다.

제27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당해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 2009년 6.15경기본부 체계

## ■ 고 문 (현재 23인)

번호	이 름	번호	이 름
1	김진춘목사 (매원교회)	13	지원스님 (보림사)
2	김추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경기지회장)	14	한성건 (경기도 IT협의회 의장)
3	민경학 (전 전농도연맹의장)	15	효림스님 (보광사)
4	박기래 (안산통일학교교장)	16	강성중 (국회의원)
5	백규현 (여주세종신문사이사장)	17	문학진 (국회의원)
6	석달윤 (통일운동가)	18	안민석 (국회의원)
7	안재구 (범민련경기인천연합고문)	19	이기우 (국회의원)
8	윤기석목사 (기독교장로회증경총회장)	20	이원영 (국회의원)
9	이기형 (시인)	21	최 성 (국회의원)
10	이태일 (경기대학교 총장)	22	최순영 (경기여성연대고문, 국회의원)
11	임병규 (남양주향토사료관관장)	23	장문하(경기민언련 상임대표)
12	정춘자 (경기여성연대고문)		

## ■ 지도위원 (현재 13인)

번호	이 름	번호	이 름
1	강홍구 (동두천시민연대대표)	8	송재룡 (경희대사회학과교수)
2	김경수 (선문대교양학과교수)	9	이선이 (아주대사회학부교수)
3	김동균 (변호사)	10	임영인신부 (나눔의 집)
4	박공우 (변호사)	11	한옥자 (경기여성단체연합감사)
5	수산스님 (대승원)	12	신종철 (전 경기도의원)
6	김형식(도의원)	13	조복록(도의원)
7	송영주(도의원)		

■ 감사 : 박덕순(경기도의회 의원), 양홍관(생명살림운동본부 대표)

■ 상임대표 : 한명수 목사 (세계밀알 이사장, 창훈대교회 원로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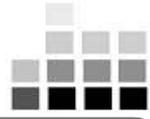
■ 공동대표 (현재 33인)

번호	단 체 명	번호	단 체 명
1	상임대표	20	민주공무원노조경기본부
2	6.15 고양본부	21	민주노동당경기도당
3	6.15 성남본부	22	민주노총경기도본부
4	6.15 수원본부	23	범민련경인연합
5	6.15 안산본부	24	원불교경기인천교구
6	6.15 안양본부	25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7	(사)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	26	전농경기도연맹
8	경기청년단체협의회(준)	27	참교육을 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9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28	천도교수원교구
10	경기복지시민연대	29	민주당 경기도당
11	경기여성단체연합	30	한국노총경기본부
12	경기여성연대	31	홍사단경기도협의회
13	경기자주여성연대	32	장원철((주) 듀텍홀딩스 대표이사)
14	경기환경운동연합	33	김상희(한일웨딩부페 대표)
15	기장경기노회통일위원회		
16	남북공동선언경기실천연대		
17	대한성공회남부교무구		
18	민족문제연구소경기남부지부		
19	민족예술인총연합회경기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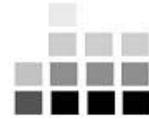
## ■ 운영위원(현재 16인)

한명수 (6.15 경기본부 상임대표)  
이성구 (6.15 고양본부 상임공동대표)  
박희영 (6.15 수원본부 상임대표)  
윤병일 (6.15 성남본부 상임공동대표)  
노세극 (6.15 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  
박길용 (6.15 안양본부 상임대표)  
이주현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홍은숙 (경기청년단체연합(준) 의장)

안동섭 (민주노동당경기도당 위원장)  
박효진 (전교조경기지부 지부장)  
류명화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현수 (민족예술인총연합회 경기지회장)  
배성태 (민주노총경기본부 본부장)  
박기춘 (민주당경기도당 위원장)  
이흥기 (전농경기도연맹 의장)  
이화수 (한국노총 경기본부 의장)



# 상임대표 인사말씀



# 축사1. 6.15남측위원회

**우리 모두 역사를 삼시다. 새봄이 눈 앞입니다.**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4.19 50주년, 5.18민중항쟁 30주년, 6.15공동선언 10주년, 한국전쟁 60주년, 8.22 경술국치 100주년 등 우리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새겨진 민중의 고난과 투쟁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한 해입니다.

우리 사회가 일제 식민지의 피맺힌 경험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자주적 통일독립국가를 세우겠다는 선조들의 비원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맵찬 겨울날씨도 다가오는 새봄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는 법임을 우린 잘 압니다. 남북관계에 몰아닥친 냉풍도 역사의 이치 따라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내는 날도 그리 멀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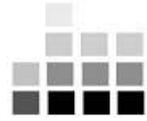
올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현실의 안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역사를 사는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부당한 권력의 횡포와 퇴행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맞서면서도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 슬기롭게 남북 문제를 설명하고 풀어가려는 6.15시대의 지혜와 성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10주년을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큰 기쁨 속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남다른 지혜와 실천으로 오늘 “다시 6.15”를 실천하는 일에 경기본부 회원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의 건투와 다복을 기원합니다.

2010년 1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 상 근



# 축사1. 6.15북측위원회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경기본부 앞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드높은 각오와 의지를 안고 새해 통일애국의 첫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딘 6.15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전체 성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경기본부 총회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북남선언들을 앞장에서 고수리행해 나가려는 경기본부의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새해의 진군길에 펼쳐나선 겨레의 애국운동을 힘있게 추동하는 의의있는 계기로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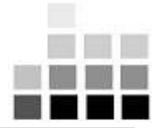
우리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0돛이 되는 올해에 다시 한번 6.15의 열풍, <우리 민족끼리>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북남관계 발전과 자주통일위업 실현에서 결정적 전진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화해를 도모하며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각계층의 래왕과 접촉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자주적존엄과 나라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귀 본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앞장에서 리행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모든 통일애국 력량과 굳게 련대 단합하여 반통일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2010년을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사에 특기할 해로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애국운동을 적극 벌려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주체 99(2010)년 1 월 18 일



# 축사1. 6.15해외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총회에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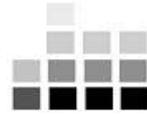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이 되는 올해 연초에 거래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 굳은 결의를 안고 경기본부 총회를 개최한데 대해 경기본부 전체 임원들에게 뜨거운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남북관계가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큰 난관이 가로놓인 속에서 개최된 경기본부 총회는 6.15의 가치를 변함없이 추켜들고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들을 고수 이행해 나가려는 귀 단체의 흔들림 없는 통일 의지와 기상을 해내외에 크게 과시하는 의의 깊은 계기로 됩니다.

우리는 귀 본부가 앞으로도 6.15의 가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반통일의 준동을 저지시켜 자주통일과 평화, 번영을 위한 통일애국운동에 계속 앞장서 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우리는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6.15통일시대를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길에서 여러분들과 언제나 손잡고 나아갈 것을 결의하면서 다시 한번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2010년 1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 안건 심의

## 안건 1. 감사보고 및 심의의 건

[주문사항 : 감사보고서를 심의해 주십시오.]

### 6.15경기본부 2009년 감사보고서

회계연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감사일시 : 2010년 1월 13일

감사장소 :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실

감사자 : 박덕순, 양홍관

피감사자 : 안영욱

#### 1. 사업 감사

○ 어려운 살림을 꾸려온 사무처 식구들에게 수고의 인사를 먼저 보냅니다.

○ 6.15공동선언이 무시되고 반복대결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속에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알려내고 지켜내기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근자가 한 명 줄어든 속에서도 제4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찾아가는 통일교육 등 여러 대중 사업을 펼친 것은 성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몇 시군본부의 사고지역 발생과 사임하는 분들이 나오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다른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 개설된 홈페이지 홍보를 위해 6.15경기본부 각종 자료와 언론사 사설에도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 하는 등 6.15경기본부를 알리는 일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에는 조직사업과 실천사업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집행부도 보강되었으면 합니다.

## 2. 재정 감사

○ 회계기준에 의거 감사 했으나 문제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 93%에 달하는 회비 납부율은 작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단체는 재작년에 이어 2009년에도 여전히 회비 납부율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현재 참가단체만의 회비로는 6.15경기본부를 운영하기 힘듭니다. 회비 말고 다른 재정마련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문, 지도위원의 재정 후원과 일반 후원회원을 많이 늘려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속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또한 현재 사업비중 일부를 경기도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기도청 본예산도 지원 받아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현 이명박 정부의 6.15공동선언 무시로 어려운 조건에서도 통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공동대표, 집행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 사 : 박 덕 순

감 사 : 양 흥 관

## 안건 2. 2009년 사업평가 심의의 건

[주문사항 : 2009년 6.15경기본부 사업 평가안을 심의해주십시오.]

### 6.15 경기본부 2009년 사업 일지

#### <09년 1월>

- 1월 7일 6.15경기본부 통일쌀 북송 기자회견
- 1월 9일 6.15경기본부 총회준비위 4차 회의
- 1월 9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1월 14일 6.15경기본부 41차 운영위회의
- 1월 19일 원불교경기인천교구 사무국장님과 면담
- 1월 22일 6.15경기본부 2009년 정기 총회
- 1월 29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09년 2월>

- 2월 3일 6.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 집행위원회 회의
- 2월 3일 6.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
- 2월 5일 집행위원회 회의
- 2월 5일 경기지역 통일원로 신년 하례식
- 2월 8일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 2월 12일 안양지역 평화아카데미 창립식 및 <평화오피니언리더 1강좌> 참석
- 2월 17일 6.15남측위원회 17차 운영위회의
- 2월 17일 6.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 대표자와 지역집행위 합동 회의
- 2월 17일 6.15남측위원회 2009년 정기공동대표자회의
- 2월 19일 6.15경기본부 42차 운영위회의
- 2월 22일 대한불교청년회경기지구 회장 이취임식
- 2월 23일 이명박 정부 취임 1년 기자회견
- 2월 24일 6.15안양본부 2009년 총회 참가

#### <09년 3월>

- 3월 4일 경기통일정책포럼(준) 1차 모임

- 3월 5일 민주당경기도당 방문
- 3월 10일 키리졸브훈련 반대 보도자료 및 성명서 발표
- 3월 11일 6.15경기본부 2009년 1차 집행위원회 회의
- 3월 11일 교육위원회 간담회
- 3월 12일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방문
- 3월 19일 6.15경기본부 43차 운영위원회의
- 3월 20일 6.15남측위원회 3기 1차 운영위원회 회의
- 3월 21일 민주노동당경기도당 이취임식 참가
- 3월 22일 천도교수원교구 찾아가는 통일교육
- 3월 23일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 방문
- 3월 23일 통일농수산사업단 방문
- 3월 24일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이취임식 참가
- 3월 25일 민주노총경기본부 경기지역 노동자 결의대회 참가
- 3월 27일 경기지역 3.8여성대회 참가
- 3월 31일 교육위원회 1차 회의

## 〈09년 4월〉

- 4월 1일 도의원 통일포럼과 1차 토론회 진행
- 4월 9일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방문
- 4월 9일 6.15경기본부 3월 소식지 발송
- 4월 10일 6.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 집행위원회 회의(대전)
- 4월 10일 6.15수원본부 총회(수원)
- 4월 11일 교육위원회 2차 회의
- 4월 14일 6.15경기본부 2차 집행위원회 회의
- 4월 22일 6.15경기본부 44차 운영위원회의
- 4월 22일 “PSI참여 반대 기자회견”
- 4월 23일 6.15용인본부 건설 준비를 위한 용인 방문
- 4월 23일 6.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
- 4월 24일 6.15경기본부 교육위원 3차 회의
- 4월 26일 전농경기도연맹 ‘농경체험한마당’ 참여
- 4월 29일 6.15용인본부 건설 준비를 위한 용인 방문
- 4월 29일 6.15남측위 3기 2차 운영위 회의
- 4월 30일 경기민예총의 경기인형극제 개막식 참여
- 4월 30일 찾아가는 통일교육 - 역사와 진실 강연

## 〈09년 5월〉

- 5월 6일 제4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기획단 사전 모임
- 5월 7일 경기통일정책포럼(준)과 도의원 민통선 기행
- 5월 12일 6.15경기본부 1차 확대 집행위원회 회의
- 5월 13일 제4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1차 기획단 회의

- 5월 14일 6.15경기본부 45차 운영위회의(시루봉)
- 5월 14일 민주노동당경기도당 운영위회의 간담회(민주노동당경기도당)
- 5월 14일 6.15남측위 상임대표와의 간담회(시루봉)
- 5월 23일 범민련탄압 중단 결의대회(마로니에)
- 5월 26일 이기우 고문 방문
- 5월 27일 3차 찾아가는 통일교육(기아화성)
- 5월 28일 6.15남측위원회 지역집행위원회 회의(겨레하나)
- 5월 28일 6.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겨레하나)
- 5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서울광장)
- 5월 30일 4차 찾아가는 통일교육(교육청공무원노조)

## <09년 6월>

- 6월 3일 6.15남측위원회 운영위회의(한국노총)
- 6월 4일 전농경기도연맹 운영위·집행위 합동 회의 참석(포천)
- 6월 5일 경기통일마라톤 2차 기획단회의(6.15경기본부)
- 6월 5일 경기통일정책포럼(준) 회의
- 6월 7일 6.15안산본부 6.15통일행사 참석
- 6월 9일 6.15경기본부 3차 집행위 회의
- 6월 11일 경기지역통일정책 제안 1차 토론회(도의회 대회의실)
- 6월 14일 6.15공동선언 9돌 기념 범국민실천대회(장충체육관)
- 6월 15일 용인진보연대 주최의 6.15공동선언 9돌 기념식
- 6월 15일 5차 찾아가는 통일교육(용인진보연대)
- 6월 16일 경기통일마라톤대회 3차 기획단회의(임진각)
- 6월 16일 경기지역 시국선언 간담회(시루봉)
- 6월 17일 경기지역 시국선언 간담회 실무회의(6.15경기본부)
- 6월 18일 6.15경기본부 46차 운영위회의(창훈대학교)
- 6월 20일 6.15수원본부 <제 14회 수원시민통일한마당>(효원공원)
- 6월 21일 6.15안양본부 6.15공동선언 9주년 기념 강화도 평화기행
- 6월 22일 경기지역 시국선언 기획단 회의(6.15경기본부)
- 6월 25일 6차 찾아가는 통일교육(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 6월 26일 7차 찾아가는 통일교육(민주노동당 하남시위원회)
- 6월 27일 경기통일정책포럼(준) 회의(여주)

## <09년 7월>

- 7월 1일 경기지역 시국선언 기획단 회의(6.15경기본부)
- 7월 3일 경기통일마라톤 기획단 5차 회의(민주노동당경기본부)
- 7월 6일 경기지역 시국선언 실무 점검 회의(전농경기도연맹)
- 7월 7일 6.15경기본부 4차 집행위원회 회의(6.15경기본부)
- 7월 8일 민주주의, 민생,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경기지역 시국선언(경기도청)
- 7월 8일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설명회 참석(경기도 교육청)

- 7월 9일 6.15사과원 방문
- 7월 14일 경기지역 2차 시국 간담회(시루봉)
- 7월 15일 6.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 집행위원회 회의(청주)
- 7월 17일 범민련 구속자 변호사비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서울)
- 7월 20일 8차 찾아가는 통일교육(전농경기도연맹)
- 7월 20일 6.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겨레하나)
- 7월 22일 불법적인 경기진보연대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경기도경)
- 7월 22일 6.15남측위원회 4차 운영위원회(한국노총본부)
- 7월 22일 제9차 찾아가는 통일교육(부천민중연대)
- 7월 23일 제4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6차 기획단 회의
- 7월 24일 6.15경기본부 47차 운영위원회 회의(6.15안양본부)
- 7월 29일 10차 찾아가는 통일교육(여주농민회)

## <09년 8월>

- 8월 7일 준향고장 재판(수원지방법원)
- 8월 9일 11차 찾아가는 통일교육(한무리 교회)
- 8월 13일 12차 찾아가는 통일교육(부천학생위원회)
- 8월 14일 6.15안산본부 광복 64돌 기념 문화제
- 8월 18일 경기환경운동연합 방문
- 8월 19일 경기지역 시국선언 운영위원회(민주당)
- 8월 20일 13차 찾아가는 통일교육(시루봉)
- 8월 23일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참석(국회의사당)
- 8월 25일 경기통일마라톤대회 7차 기획단 회의
- 8월 25일 6.15경기본부 5차 집행위원회 회의
- 8월 27일 6.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 집행위원회 회의(전주)
- 8월 29일 6.15경기본부 48차 운영위원회
- 8월 29일 6.15경기본부 2009년 워크샵

## <09년 9월>

- 9월 2일 14차 찾아가는 통일교육(안산 여성노동자회)
- 9월 3일 원불교 20회 미술제 참석
- 9월 4일 민주주의, 민생,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경기시국회의 운영위원회(시루봉)
- 9월 7일 6.15남측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 9월 8일 경기통일마라톤대회 기획단 회의
- 9월 10일 경기민언련 후원의 밤
- 9월 12일 전교조경기지부 통일위원회 통일기행
- 9월 16일 6.15경기본부 6차 집행위원회 회의
- 9월 17일 6.15경기본부 49차 운영위원회 회의(창훈대학교)
- 9월 17일 마라톤 기획단 회의(임진각)
- 9월 21일 15차 찾아가는 통일학교(6.15고양본부)

- 9월 23일 경기지역 시국회의 운영위회의(도의회)
- 9월 23일 경기지역 시국회의 대표자회의(도의회)
- 9월 24일 6.15수원본부 10.4선언 2주년 기념 통일정세 강연
- 9월 25일 16차 찾아가는 통일교육(안사청)
- 9월 28일 17차 찾아가는 통일교육(6.15고양본부)
- 9월 29일 마라톤 기획단 회의(6.15경기본부)

## <09년 10월>

- 10월 1일 마라톤 기획단 회의(6.15경기본부)
- 10월 9일 경기지역 통일정책 제안 2차 토론회(경기도교육종합복지센터)
- 10월 9일 남북공동선언 경기실천연대 후원주점
- 10월 10일 경기민족예술제(안산)
- 10월 14일 6.15경기본부 7차 집행위원회 회의
- 10월 14일 마라톤 기획단 회의(6.15경기본부)
- 10월 14일 18차 찾아가는 통일교육(6.15고양본부)
- 10월 17일 6.15안산본부 10.4선언 2주년 기념 자전거 대행진 참여
- 10월 20일 6.15경기본부 20차 운영위원회 회의(경기여성단체연합)
- 10월 20일 19차 찾아가는 통일교육(안양 일하는 청년회)
- 10월 20일 제4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진행요원 1차 워크샵(민주노총경기본부)
- 10월 21일 제4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10차 기획단 회의
- 10월 29일 제4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진행요원 2차 워크샵(민주노총경기본부)

## <09년 11월>

- 11월 1일 제4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 11월 10일 20차 찾아가는 통일교육(수원YWCA)
- 11월 11일 1차 총준위 회의(6.15경기본부)
- 11월 13일 제4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11차 기획단 회의
- 11월 17일 21차 찾아가는 통일교육(수원YWCA)
- 11월 18일 22차 찾아가는 통일교육(군포청년회)
- 11월 20일 6.15경기본부 51차 운영위원회 회의(6.15고양본부)
- 11월 24일 23차 찾아가는 통일학교(수원ywca)
- 11월 24일 제4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기획단 평가 수련회
- 11월 25일 24차 찾아가는 통일학교(통일마당)
- 11월 26일 한명수 상임대표 출판기념회
- 11월 27일 25차 찾아가는 통일학교(수원여성회)
- 11월 29일 범민련 19돌 기념대회(부산)

## <09년 12월>

- 12월 1일 2차 총준위 회의(6.15경기본부)

- 12월 1일 총회준비위원회 2차 회의(6.15경기본부)
- 12월 2일~3일 6.15남측위 지역본부 수련회(울산)
- 12월 6일 범민련경인연합 송년회(민주노총경기본부)
- 12월 10일 52차 운영위원회 회의(6.15경기본부)
- 12월 11일 경기민언련 총회(시루봉)
- 12월 15일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 합동 송년회
- 12월 15일 통일교육문화원 방문
- 12월 20일 경기민예총 주최의 '경기통일미술전'(안양 알바로시자홀)
- 12월 21일 통일교육문화원의 통일교육 참관(분당 대진고등학교)
- 12월 23일 3차 총준위 회의(전교조경기지부)

# 6.15 경기본부 2009년 사업 평가서

## 1. 총 평

○ 오바마 정부의 대북무시 정책의 기초 속에서 북은 4월 인공위성 발사와 5월 2차 핵실험을 통해 북미대화를 제기하였다. 8월 4일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미관계는 대화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북미간의 핵대결 20년의 막바지에 와 있다. 12월 중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대화는 북의 핵과 미국의 안전보장에서 중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이며 이는 2010년 한반도 통일정세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 올 초부터 대북적대정책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는 현재의 북미대화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대화를 하려고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제3차 서해교전을 통해 냉각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려 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6.15공동위원회를 ‘반미친북단체’라고 규정해 6.15충북본부를 시작으로 부산, 경기, 제주본부까지 탄압하고 남북간의 교류 협력을 거의 막아버렸다. 이런 탄압과 냉각의 분위기는 전국적인 통일운동단체의 위기로 나서고 있으며 6.15남측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렸다. 6.15경기본부 또한 3개의 지역본부가 사고지역으로 되고 고문, 지도위원이 사임하는 등 초창기 55명의 공동대표에서 33명의 공동대표로 위축되었다.

○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6.15경기본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6.15공동선언을 대중적으로 알려내고 통일의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 시작한 제4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6.15경기본부의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 되기에 충분하다. 특히 외부의 어떤 단체나 기관의 도움이 아닌 소속단체의 협력과 노력만으로 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룬 것은 매우 값진 성과라 하겠다. 이외에도 25차를 넘는 ‘찾아가는 통일교육’은 일상적 통일교육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경기통일정책 제안 토론회’ 또한 많은 사람들의 참여는 없었지만 경기도에 맞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정책을 만들어 낸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 지금과 같이 왜곡된 통일관련 정보와 반북정서가 팽배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14명의 홍보위원들이 60편에 가까운 칼럼을 12개의 언론사에 기고한 것은 경기도민들에게 6.15공동선언과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6.15경기본부의 연중 사업에 몇 가지 주요 사업들이 자리를 잡아가게 된 것은 폭넓은 의견수렴과 집행력의 담보가 가능한 집행위원회가 있어서 가능했다.

○ 6.15경기본부가 해방 이후 가장 광범위한 통일단체를 망라한 최대의 통일운동 상설조직이라면 이에 응당한 규모와 활동을 해야 한다. 더 많은 단체들이 6.15경기본부에 가입하고 31개의 시군에 6.15공동위원회 조직이 건설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과 사업이 더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제출되고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6.15경기본부 소속단체들의 결합력이 높지 않은 것이다. 낮은 회의 출석률, 10명이 넘지 않는 토론회, 강연회는 사업 기획부터 통큰 사업을 구상할 수 없게 한다. 겨우 5명을 넘은 <사형선고 받은 국가보안법> 강연회는 폐기되고 제4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는 33개의 소속단체 중 10개 단체만이 참여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보면 33개 단체가 참여하여 합심한다면 1만 명이 넘는 대회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 6.15경기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대부분의 진보, 시민단체는 31개 시군에 산하조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시군에 있는 여러 부문 조직들이 모여 6.15공동위원회 시군본부를 만들고 있지는 못 하고 있다. 6.15경기본부에 가입되어 있는 진보, 시민단체들이 약간의 적극성을 보여준다면 개별인사를 포함해 여타 6.15세력을 모아 6.15공동위원회 시군본부 건설을 충분히 할 수 있다.

6.15경기본부가 힘이 있을 때 주변의 많은 단체들이 가입을 하려하고 건설된 시군본부는 다시 각 소속단체의 확대,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6.15공동위원회가 나와 별개의 사업이 아닌 자기 조직을 확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6.15경기본부는 진보세력 뿐만 아니라 사회 중간층, 전문직 인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의 진보단체나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조직을 통해 결합되어 있으나 사회 중간층, 전문직 인사는 소수이거나 개별이지만 그들의 지위와 영향력은 크다. 이들이 6.15경기본부에 동참하여 힘을 보태준다면 통일운동의 확산에 날개를 달 것이다. 이들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계기와 지속시킬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로는 조직이 위축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조직사업을 힘 있게 전개하지 못했다.

남북관계의 급랭과 이명박 정부의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전국적인 통일운동단체의 위축과 함께 6.15경기본부에도 사임과 탈퇴 등 위축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나 내부가 똘똘 뭉쳐 있었다면 외부의 악조건은 내부의 단결된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인데 6.15경기본부의 결속력은 많이 이완되어 있다. 조직 사업 전담자의 부재, 상근자 1명의 축소로 늘어나는 실무와 대중사업에 치우쳐 조직사업에 많은 공백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6.15경기본부의 활발한 조직사업을 위해 조직 전담 대표자와 보좌할 집행 상근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상근자의 상근비 마련과 조직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 재정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단체의 규모에 따른 회비의 재조정과 단체가 담보하는 후원회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로는 6.15경기본부 소속단체의 대부분의 부문 조직이 자체의 통일관련 사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6.15경기본부만으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알려내는데 한계가 있으며 6.15세력을 확대 장성시키는데 더딜 수 밖에 없다. 각 부문 단체가 자기만의 통일관련 사업을 통해 다수의 대중, 회원들이 함께 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6.15경기본부는 부문단체들이 통일관

런 자기 사업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정리하면 대중사업은 자리를 잡아가는 반면 조직사업과 실천사업에서는 많은 공백이 발생하였다.

## 2. 분야별 사업 보고 및 평가

### 1> 6.15 공동선언 및 10.4선언 지지 이행사업

#### ■ 진행사업

##### ① 제4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 ◆ 취지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알려내고 통일의 열기를 확인하는 6.15경기본부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대중 사업으로 만든다.

###### ◆ 경과와 결과

- 9인 기획단 구성으로 6월부터 11차까지 기획단 회의 진행
- 4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1200여명이 참석하는 성공적인 대회를 치름
- 57명의 준비위원 중 39명이 6.15경기본부 고문, 지도위원, 감사, 공동대표임.  
[현재 감사-2명, 고문-22명, 지도위원-13명, 공동대표-32명]
- 30개 참가단체 중 10개 단체에서 마라톤 참가자 조직.

###### ◆ 제4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참가 분석표

구 분	단 체 명	목 표 인 원(명)		08년	비 고
		목표	결과		
1	민주노총경기도본부	700	512	431	
2	민주당경기도당	10	4		
3	민주노동당경기도당	200	54	49	
4	6.15안산본부	60	28	29	
5	6.15수원본부	60	18		
6	6.15안양본부	20	10		
7	6.15고양본부	20	20	26	
8	경기자주여성연대	0			
9	경기민언련	0		10	
10	경기청년단체연합(준)	50	52		
11	경기민예총	0			
12	경기여성단체연합	0			
13	경기여성연대	0			

14	민족문제연구소경기남부지부	0			
15	경기실천연대	5	5		
16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0			
17	경기복지시민연대	0			
18	경기환경운동연합	0			
19	천도교수원교구	0	13		
20	전농경기도연맹	0			
21	평택민주단체 연대	10		25	
22	안성연대	0		18	
23	오산민주단체연석회의	3			
24	용인진보연대	0			
25	경기북부진보연대				
26	광주지역	20	16	16	
27	안성마라톤	0			
28	광명시	0			
29	민공노 경기교육청본부	20			13명 민주노총에 포함
30	부천시	10			
31	인천	2	2		
32	범남	2	0		
33	푸른학교		63		
34	수원시민신문		4		
35	일반 시민	300	414	250	
		1,492	1,215	604	

※ 색칠은 6.15경기본부 소속단체로서 33개 단체 중 10개 단체만 참여

◆ 제4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준비위원 57명 중 42명이 공동대표, 고문, 감사, 지도위원이다.

## ② 부문 사업에 대한 지원

### ◆ 취지

- 부문단체의 통일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 ◆ 경과와 결과

- 진행된 사업이 없음
- 부문단체에서 진행하는 통일사업의 점검과 이에 따른 연계과정이 거의 없었다.

## ③ 기념사업

### ◆ 취지

- 6.15, 8.15, 10.4선언 발표일에 맞춘 각종 기념사업을 통해 통일운동의 분위기 확산을 한다.

### ◆ 경과와 결과

- 각 시군본부의 6.15 기념행사, 10.4선언 기념행사를 지원
- 6.15경기본부 차원의 독자적인 사업은 없음.

#### ④ 현수막 걸기 사업

##### ◆ 취지

- 6.15공동선언 발표 기념일에 도심 길거리, 현수막 게시대에 6.15공동선언 기념 현수막이 걸리게 한다.

##### ◆ 경과와 결과

- 안산, 안양에서만 진행되었으나 모두 철거되고 민주공무원노조에서도 진행하려 했으나 힘있게 진행되지 못 했음

#### ⑤ 통일기 갖기 운동

##### ◆ 취지

- 6.15와 8.15, 10.4 기념일에 통일기가 단체, 집집 마다 게양 될 수 있게 한다.

##### ◆ 경과와 결과

- 전혀 진행되지 않음

#### ⑥ 경기지역 통일정책 제안 토론회

##### ◆ 취지

- 경기도에 맞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관련 정책을 만들어낸다.

- 경기지역에 통일관련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경기지역 전문 통일 토론회로 자리 잡는다.

##### ◆ 경과와 결과

- <경기지역 통일정책 제안 토론회>는 2007년부터 매년 지원금을 받아서 진행해 온 토론회 임.

- 1차 토론회는 6월 11일 <경기도 남북 농업교류협력 사업의 현황과 개선점> 주제로 진행. 10명 참가

- 양훈도(수원방송 시사프로 진행자)님의 진행으로 장경호(통일농수산사업단 정책실장), 백규현(여주군 통일사업협의회 회장), 최용환(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조복록(도의원), 최재관(전농경기도연맹 교육위원장), 박광호(한국농업대학 교수) 등 6명이 토론을 진행 함

- 2차 토론회는 10월 9일 <경기도 초중등학교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주제로 진행, 15명 참가

- 양훈도(수원방송 시사토론회 진행자)의 진행으로 간우연(삼일초등학교 교사), 이종섭(전 교조경기지부 통일위원장), 성탁호(광주하남교육청 장학사), 최창의(경기도교육위원회 위원), 김기환(통일교육문화원 평화교육센터 소장), 김이경(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등 6명이 토론을 진행 함

- 내년도 경기도 초중등학교에 평화통일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 ⑦ 경기통일정책포럼 준비위원회 활성화

##### ◆ 취지

- 경기도에 맞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관련 정책을 만들어내는 기획, 연구단체의 필요

성이 제기된다.

- 경기지역에 통일관련 인프라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 **경과와 결과**

- 준비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되고 진행되지 않음.

⑧ **홈페이지 활성화 사업**

◆ **취지**

- 6.15경기본부를 알려내고 통일관련 자료를 한곳으로 모을 필요가 있다.

◆ **경과와 결과**

- 기존의 홈페이지를 새로이 제작함 <[www.615gg.org](http://www.615gg.org)>
- 아직 방문자는 많지 않은 상황

⑨ **정치적 대응 사업**

◆ **취지**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켜내고 알려내기 위한 정치적 대응을 한다.

◆ **경과와 결과**

- 총 11회의 성명서 및 기자회견 진행
- 6.15남측위원회에서 제기한 <남북화해와 협력을 염원하는 범국민서명운동> 진행 못함
- 해외동포대회에 보낼 <통일기 연서명 사업> 보내지 못 함

-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 반대 성명서(2.9)
- 키리졸브 전쟁훈련 반대 성명서(3.11)
- PSI전면 참여 반대 기자회견(4.22)
- 민주주의 사수, 6.15사수 경기대책위 발족 기자회견(5.15)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애도 성명서(5.24)
- 6.15부산본부에 대한 국정원의 출두요구 규탄 성명서 발표(6.22)
- 민주주의, 민생,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경기지역 시국선언 기자회견(7.8)
- 6.15경기본부, 경기진보연대, 진농경기도연맹의 불법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7.21)
- 현대그룹과 북과의 5개항 합의 보도문 발표 환영 성명서(8.18)
-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6.15경기본부 추도사(8.18)
- 6.15제주본부 탄압 관련 성명서 발표(11.13)

⑩ **홍보위원회 사업**

◆ **취지**

- 경기도의 많은 시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홍보위원회 사업을 한다.

◆ **경과와 결과**

- 7명이 1조가 되어 2조가 매주 통일관련 칼럼을 보내주고 있음
- 3월부터 지금까지 61편의 칼럼이 나왔으며 12개의 지역 인터넷언론사에 보내지고 있음:
- 홍보위원(14명) : 이주현, 박희영, 노세극, 박길용, 이종섭, 서상철, 이성구,

- 김용한, 김찬수, 백규현, 범상스님, 홍안나, 이종만, 문영희
- 언론사(12곳) : 수원시민신문, 신문고뉴스, 남양주 뉴스, 부천타임즈, 성남투데이  
오산시민신문, 컬쳐인 시흥, 세종신문, 아이컬쳐시사뉴스, 안양뉴스  
군포시민신문, 화성신문
  - 칼럼 수(61편) : 이주현(7편), 박희영(6편), 노세극(6편), 서상철(6편), 문영희(6편)  
이종섭(5편), 김찬수(4편), 이성구(4편), 홍안나(3편), 한명수(3편)  
김용한(2편), 백규현(2편), 이종만(2편), 범상스님(2편), 박길용(2편),  
안영옥(1편)

■ 2009년 홍보위원회의 칼럼 목록

■ 3월 - 7편

날 짜	칼 럼 제 목	칼럼자	소식지
3월 9일	<3.1정신과 통일>	이주현	4월호
	<키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훈련, 당장 중단해야>	김용한	4월호
3월16일	<가난한 이웃이 있다>	백규현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는 날을 기다리며>	박희영	
3월23일	<줄세우기 교육정책>	김찬수	
3월30일	<소위 방어전쟁>	서상철	
	<다시 생각하는 중립화 통일론>	노세극	

■ 4월 - 7편

날 짜	칼 럼 제 목	칼럼자	소식지
4월 6일	<북한 인공위성 발사에 이성적으로 대하자>	이종섭	
4월13일	<누구를 위한 미사일인가>	홍안나	5월호
	<당신이 길이며 평화입니다>	이성구	
4월20일	<백낙청의 변혁적 중도주의>	문영희	
	<PSI 전면 참여 글로벌 코리아 파국>	이주현	
4월27일	<부활절에 생각하는 통일>	박희영	
	<대량살상무기 확산 주범은 미국>	김용한	5월호

■ 5월 - 5편

날 짜	칼 럼 제 목	칼럼자	소식지
5월 4일	<중립국으로 가자>	노세극	
	<8월 29일 국치일을 기억합시다>	김찬수	
5월11일	<더 많은 농작물을 심었으면>	백규현	
5월18일	<원정화와 천정배는 뭐하고 사나>	서상철	6월호
5월25일	<국민들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	이종섭	6월호

■ 6월 - 7편

날 짜	칼 럼 제 목	칼럼자	소식지
6월 1일	<부활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위기의 한반도>	이성구	7월호
	<통일운동과 국가보안법>	문영희	
6월 8일	<속수무책 대북정책이 만든 오류>	이주현	
	<죽은자는 말이 없는데>	한명수	
6월15일	<아 답답하다>	박희영	7월호
6월22일	<이란에서의 대장금>	노세극	
6월29일	<김동길 교수님께>	한명수	

#### ■ 7월 - 6편

날 짜	칼 럼 제 목	칼럼자	소식지
7월 6일	<깨진 바가지쇼 이제 그만>	서상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홍안나	
7월13일	<악어와 악어새>	문영희	8월호
	<오히려 적반하장이라>	이종섭	8월호
7월20일	<우리는 만나야 한다.>	이성구	
7월27일	<MB정부와 쌍용자동차 현장, 그리고 디도스>	이주현	

#### ■ 8월 - 6편

날 짜	칼 럼 제 목	칼럼자	소식지
8월 3일	<저들이 죽으면 다 죽는다>	박희영	
8월10일	<2009년 8월 5일>	노세극	9월호
	<815에 진정성 있는 대북제안을 해라>	김찬수	9월호
8월17일	<김대중 통일 대통령>	안영옥	
8월24일	<아듀 20세기>	서상철	
8월31일	<남북문제는 조건 없는 교류로>	이종만	10월호

#### ■ 9월 - 5편

날 짜	칼 럼 제 목	칼럼자	소식지
9월 7일	<한반도 평화와 우리민족끼리>	이성구	
	<일본의 변화가 한반도 변화를 견인한다>	문영희	
9월14일	<임진강 참사 무인경보시스템만 고장인가>	이주현	10월호
9월21일	<어설픈 평화주의자의 속마음 드러내기>	박희영	
9월28일	<코스타리카를 아십니까>	노세극	

#### ■ 10월 - 7편

날 짜	칼 럼 제 목	칼럼자	소식지
10월 5일	<3%에 저항하라>	범상스님	
10월12일	<눈가리고 아웅>	이종섭	
	<대북쌀지원으로 남도북도 살자>	홍안나	11월호
10월19일	<이른바 '퍼주기'라는 말에 판지 걸어보기>	박길용	11월호

	<최원호 ‘치킨전문점’ 대표>	이종만	
10월26일	<정부의 통일관에 맞추어 주세요>	서상철	
	<통일문제를 공부하는 사람들>	문영희	

### ■ 11월 - 6편

날 짜	칼 럼 제 목	칼럼자	
11월 2일	<남북공조를 기약했는데>	한명수	
11월 9일	<독일통일20년 한국의 슬픈 자화상>	이주현	
	<통일운동과 친일인명사전 발간>	김찬수	
11월16일	<비폭력의 왕>	박희영	
11월23일	<이제라도 10.4선언을 지킨다면>	노세극	
	<원효의 과제와 통일>	범상스님	

### ■ 12월 - 5편

날 짜	칼 럼 제 목	칼럼자	
12월 7일	<통일의 외톨이가 되지 말자>	이종섭	
	<군 복무기간을 다시 생각함>	박길용	1월호
12월14일	<정전협정과 북핵문제>	서상철	
	<내년은 한반도 전쟁 발발 60년>	문영희	1월호
12월28일	<오현리 주민이 밝힌 촛불의 뜻>	이주현	

### ■ 평가

#### o 성과점

- 이명박 정부의 반6.15정책과 대북 적대정책으로 인한 경색된 통일정세에서도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경기도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특히 제4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가 1200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끝나 6.15경기본부의 대표적 대중사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 칼럼 보내기 사업은 통일에 대한 올바른 관점, 정보를 경기도민들에게 제 때에 전달하려는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된 사업으로서 우리들이 잘 할 수 있는 사업이다. 60편에 가까운 적지 않은 통일칼럼이 꾸준하게 나온 것은 모두 14분의 홍보위원님들이 잘 해주었기에 가능했다. 처음에는 몇 개 안되는 지역 인터넷 언론사에서 12개 지역 언론사로 늘어난 것도 큰 성과라 하겠다.
- 경기지역 통일정책 제안 토론회는 참가자가 많지 않았지만 정책을 생산하고 전문가들끼리 교감한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다. 특히 <경기도 초·중·등학교의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토론회는 내년 경기도 초·중·등학교에서 실시 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이 나와서 토론회를 더욱 더 의미 있게 했다.

## 0 과제

- 몇 몇 사업들은 6.15경기본부의 일상적이고 대표적인 사업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도민들에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알려내는 데는 규모의 한계, 파급력의 한계가 있다. 더 많은 대중들에게 더 많은 통일관련 소식과 내용을 더 지속적으로 알려 낼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사업개발은 다양한 계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일사업을 개발하여 그들의 처지와 조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중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6.15경기본부만의 사업으로는 6.15공동선언을 알려내는데 한계가 있어 소속단체 각각이 자기만의 통일사업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6.15경기본부가 지원했어야 했는데 잘 진행되지 못 했다.

- 4가지 사업은(마라톤, 찾아가는 통일교육, 칼럼보내기 사업, 정책 토론회) 이제 6.15경기본부의 대표적이고 일상적인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단위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제4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를 보면 30개의 소속단체 중 10개 단체만이 참여했으며 경기지역 통일정책 제안 1차 토론회의 참가자는 10명도 안되었다.

## 2> 경기본부 조직 확대 강화 사업

### ■ 진행사업

#### ① 조직 강화 사업

##### 1> 운영위원 회의 출석률

구분	운영위원	41차 (1/14)	42차 (2/19)	43차 (3/19)	44차 (4/22)	45차 (5/14)	46차 (6/18)	47차 (7/24)	48차 (8/29)	49차 (9/17)	50차 (10/20)	51차 (11/20)	52차 (12/10)	출석률(%)
1	상임대표	0		0	0	0	0	0	0	0	0	0	0	91.7
2	6.15고양본부	0	0	위임	위임		0	0	0	위임	대리	0	0	66.7
3	6.15남양주본부	위임		사 고										
4	6.15성남본부	위임	위임											0
5	6.15수원본부	0	0	0	0	0	0	0	0	0		위임	0	83.3
6	6.15이천본부	위임	위임	사 고										
7	6.15안산본부	대리	0	대리	0	0	0	대리		대리	0			75
8	6.15안양본부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0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100
9	6.15오산본부	0	0	사 고										
10	경기청년단체연합(준)	0	0	0	0		위임	대리		0	0	위임		58.3
11	경기여성단체연합	위임	위임	위임	위임			대리		대리	0	위임		25
12	경기민연련	위임	위임	0	0	위임	0	0	0	0	0	0	0	75
13	민예총 경기지회	위임	위임	대리	위임	위임	위임	위임			위임	위임	위임	8.3
14	민주노동당경기도당	0	0	대리	0		위임	대리	0	0	0	위임	위임	66.7

15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75
16	민주당 경기도당		위임	위임	위임	위임	위임	위임						0
17	전교조경기지부	위임	0	0			0	0	대리			위임		41.7
18	전농경기도연맹	위임	위임	위임		위임	위임	위임	위임					0
19	한국노총경기본부		위임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위임		위임	41.7
출석 인원		9	8	11	9	5	8	11	8	10	8	5	6	
출석률(%)		47.4	42.1	68.7	56.3	31.3	50	68.8	50	62.5	50	31.2	37.5	

※ 0 - 참석 / 대리 - 해당 단위 집행책임자 참석 / 위임 - 회의결과에 위임

※ 출석률은 참석과 대리만 적용

## 2> 집행위원회 회의 출석률

구분	집행위원	1차 (3/11)	2차 (4/14)	1차확대 (5/12)	3차 (6/9)	4차 (7/7)	5차 (8/25)	6차 (9/16)	7차 (10/14)	출석률(%)
1	집행위원장	0	0	0	0	0	0	0	0	100
2	6.15고양본부			0						14.2
3	6.15수원본부		0				0	0		42.9
4	6.15안산본부	0	0	0	0	0	0	0	0	100
5	6.15안양본부	0	0	0	0	0	0	0	0	100
6	경기청년단체연합(준)	0	0	0	0	0	0	0	0	100
7	민예총 경기지회		0		0		0		0	57.1
8	민주노동당경기도당	0	0							28.6
9	민주노총경기도본부	0			0		0	0	0	71.4
10	전교조경기지부		0							14.2
출석 인원		6	8	8	6	4	7	6	6	
출석률(%)		60	80	20	60	40	70	60	60	

## 4> 6.15경기본부 조직 현황

### ◆ 고문 : 23명 -> 24명

[이태일 고문 사임(경기대 총장, 5월 14일)]

[이정희 고문 위촉(국회의원, 10월 20일)]

[홍희덕 고문 위촉(국회의원, 10월 20일)]

### ◆ 지도위원 : 12명 -> 15명

[이정미 지도위원 사임(아주대 교수, 9월 17일)]

[임영인 신부 사임(성공회대 신부, 12월 8일)]

[김용한 지도위원 위촉(성공회대 교수, 5월 14일)]

[윤화섭, 임종성, 고영인, 백승대 지도위원 위촉(민주당 도의원, 12월 18일)]

### ◆ 공동대표 : 37명 -> 34명

[6.15남양주본부 사임(4월 22일)]

[6.15오산본부 사임(3월 19일)]

[6.15이천본부 사임(3월 19일)]

[경기남부총련 해체(4월)]

[경기대련 가입(10월)]

- ◆ 상근자 : 2명 -> 1명  
[사무차장 사임(1월 31일)]

② 집행체계 정비

- ◆ 취지
  - 집행력의 강화를 위해 공동집행위원장제에서 집행위원회로 개편한다.
- ◆ 경과와 결과
  - 공동집행위원장제를 폐지하고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회 구성(11인)
  - 상근인 사무차장의 사임(1월 31일)으로 상근자가 1명으로 축소
  - 집행위원회 회의를 7차례 진행. 확대 집행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진행하려 했으나 5월 1차 진행하고 더 이상 진행 안됨.

③ 6.15경기본부 워크샵

- ◆ 취지
  - 점점 어려워져가는 6.15경기본부를 다시 정비하기 위한 전체 단합의 자리가 필요하다.
- ◆ 경과와 결과
  - 1차 워크샵은 8월 29일 진행. 참석 인원은 25명 정도
  - 많은 대표, 집행위원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6.15경기본부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④ 재정 안정화

- ◆ 취지
  - 6.15경기본부의 재정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 ◆ 경과와 결과
  - 소속 단체 중 몇몇 단체에 회비의 증액과 약간의 후원회원 확대로 재정이 소폭 늘어났음
  - 소속단체의 회비 납부율을 높이려 했으나 쉽지 않음
  - 08년에 비해 후원회원이 22명이 늘어나 현재 64명이 후원회원이고 월평균 39만원 정도가 후원금으로 들어옴.

월	후원 회원	회원수
2008년		42명
09년 3월	조복록, 송영주	2명
5월	박덕제, 이기우	2명
6월	김계현, 김성태, 김윤기, 김춘식, 노만경, 송순자, 김희경, 홍미라, 오영숙, 이현심	10명
8월	조용철	1명
9월	도순금, 이종섭, 한옥자, 김민선, 최영희	5명
10월	송원찬	1명
12월	반동수	1명
합계		64명

⑦ 소식지 발행 사업

- ◆ 취지

- 6.15경기본부를 후원해주시는 후원회원에게 6.15경기본부의 사업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

- 고문, 지도위원, 감사, 공동대표님들에게 6.15경기본부의 사업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

◆ **경과와 결과**

- 4월부터 총 9회 발행.

번호	소식지	배포수
1	4월호	111부
2	5월호	111부
3	6월호	113부
4	7월호	119부
5	8월호	119부
6	9월호	123부
7	10월호	124부
8	11월호	124부
9	12월호	125부
합 계		1,069부

■ **평가**

○ **성과점**

- 공동집행위원장에서 집행위원회로의 전환, 결속력 강화를 위한 8월 말 워크샵, 후원회원 관리를 위한 9차에 걸친 소식지 발행 등은 6.15경기본부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로서 일련의 성과를 갖고 있다.

- 8월 말 1차 워크샵은 많은 단체 대표자, 집행간부의 참여는 안되었지만 25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하여 6.15경기본부의 조직,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통해 후원회원이 증가 된 것은 후원회원 확대 방안이 일정 해결되었다

○ **과제**

-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인해 3개의 시군본부 사고 지역이 생기면서 2005년 55개 가입단체에서 출발했던 공동대표자가 33명으로 줄어들어 조직이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가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6.15경기본부의 주요 회의 체계는 집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있다. 이 두 회의는 위임을 통한 턱걸이 성원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사업의 결정은 있어도 집행과 참여율이 높을 수가 없다. 이번 <사형선고 받은 국가보안법> 강연이 폐기 된 것은 그 실례라 하겠다.

- 진보적인 부문단체는 대부분 6.15경기본부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대부분의 경기도 시군에 산하단체, 연대단체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미 한 지역에 통일지지 단체가 10개 정도는 있는 것이다. 진보적인 부문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조금만 있어준다면 각 시군에 6.15공동위원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 6.15경기본부는 각 시군공동위원회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중간층, 전문직 인

사를 동참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사회 중간층, 전문직 종사자는 각기 자기 자리에서 사회적 지위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이 6.15경기본부에 함께 한다면 큰 힘을 내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만날 수 있는 계기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겠다.

- 사무처장, 사무차장의 공석은 늘어나는 실무와 사업으로 인해 대중사업은 진행했어도 조직사업에 많은 공백이 발생하였다. 현재 1명의 상근자에서 2명으로 늘이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 현재의 재정상태로는 두 사람의 상근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의 규모에 맞는 단체별 회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 또한 회비만으로는 재정의 상근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후원회원을 적극적으로 늘여야 한다. 올해 후원회원이 21명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는 많이 부족하다. 하여 각 단체에서 후원회원을 일정 정도 분담하여 조직해주지 않으면 후원회원 확대는 매우 더딜 수밖에 없다.

- 위축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조직사업과 대중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집행단위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자분들이 활동력있고 책임감있게 움직이게 더 중요하다.

### 3> 교육 사업

#### ■ 진행사업

##### ① 찾아가는 통일교육

###### ◆ 취지

- 많은 단체에서 회원들에 대한 통일교육이 너무나 진행되지 않고 있다.
- 단체회원들이 가까워서 쉽고 편하게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 6.15경기본부의 일상 사업으로 진행되는 교육 사업이 있어야 한다.

###### ◆ 경과와 결과

- 현재 25차까지 '찾아가는 통일교육'이 진행되었다.
- 단체 회원들은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연중 내내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였다.
-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진행한 후 후원회원이 되어준 분들도 꽤 있다.
- 강사 : 이철기(동국대 교수), 김삼석(군사평론가), 안영민(민족21 편집국장)  
최동진(6.15인천본부 사무처장), 정성희(소통과혁신 연구소장)  
유영호(영화평론가), 김상일(전 한신대교수), 이시우(사진작가)
- 강연주제 : 정세(11회), 경제(8회), 영화(3회), 군사(1회), 대북정책(1회), 사상(1회)
- 강사요청 : 안영민(9회), 최동진(5회), 이철기(3회), 유영호(3회), 김삼석(2회)  
이시우(1회), 김상일(1회), 민 경우(1회)
- 요청단위 : 민주노동당(5회), 여성(5회), 청년·학생(3회), 지역본부(3회), 종교(3회),  
사회단체(3회), 농민(2회), 노동(1회)

번호	날짜	단체명	강연 주제	강사	참여인원
----	----	-----	-------	----	------

1	3월 22일	천도교수원교구	인내천의 논리구조와 통일의 논리구조	김상일	15명
2	4월 30일	역사와진실	인공위성 발사 후 한반도 정세	김삼석	12명
3	5월 27일	민노당 기아화성분회	2차 핵실험 이의 한반도 정세	최동진	15명
4	5월 30일	민공노 교육청본부	2차 핵실험 이후의 한반도 정세	이철기	40명
5	6월 15일	용인진보연대	2차 핵실험 이후의 한반도 정세	이철기	20명
6	6월 25일	민노당성남시위원회	2차 핵실험 이후의 한반도 정세	이철기	25명
7	6월 26일	민노당하남시위원회	2차 핵실험 이후의 한반도 정세	최동진	7명
8	7월 20일	전농경기도연맹	2차 핵실험 이후의 한반도 정세	최동진	15명
9	7월 22일	민노당부천시위원회	2009년 하반기 통일정세	안영민	40명
10	7월 29일	여주농민회	남한경제의 탈출구 통일	안영민	20명
11	8월 9일	한무리교회	남한경제의 탈출구 통일	안영민	15명
12	8월 13일	민노당부천시학생위	남한경제의 탈출구 통일	안영민	50명
13	8월 20일	경기남부 목회자모임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점	최동진	15명
14	9월 2일	안산여성노동자회	2009년 하반기 통일정세	최동진	12명
15	9월 21일	6.15고양본부	남한경제의 탈출구 통일	안영민	10명
16	9월 25일	안양사랑청년회	2009년 하반기 통일정세	김삼석	8명
17	9월 28일	6.15고양본부	영화로 보는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유영호	8명
18	10월 14일	6.15고양본부	정전협정의 의미와 평화협정	이시우	12명
19	10월 20일	안양 일하는 청년회	남한경제의 탈출구 통일	안영민	10명
20	11월 10일	수원 YWCA	2010년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민경우	15명
21	11월 17일	수원 YWCA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통일	안영민	12명
22	11월 18일	군포청년회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통일	안영민	15명
23	11월 24일	수원 YWCA	영화로 보는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유영호	10명
24	11월 25일	통일마당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통일	안영민	25명
25	11월 26일	수원 여성회	영화로 보는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유영호	12명
<b>합 계</b>					<b>418명</b>

## ② 청소년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 ◆ 취지

- 청소년들에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알려내고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 6.15경기본부 차원에서 청소년 통일교육 교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 ◆ 경과와 결과

- 자체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 까지 회의를 진행했으나 중도에 멈춘 상태

## ③ 인양과 안산의 아카데미 사업의 모범 확산

### ◆ 취지

- 평화통일 지도자과정 아카데미를 다른 시군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

### ◆ 경과와 결과

-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는 않음.

## ■ 평가

### o 성과점

-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 관심은 있지만 시간을 내지 못했던 단체의 회원들을 위해 ‘찾아가는 통일교육’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통일정세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 좋았다는 사람부터 반복적인 시각에서 통일적인 시각으로 교정되어 매우 좋았다는 사람까지 반응이 매우 좋았다. 또한 같은 강연 주제라도 여러 강사진을 두어 대상자의 특성에 맞춰 강사를 선택한 것은 매우 좋았다.
- 진보단체는 급변하는 정세에 대한 강연 요청이 많았던 반면 일반 시민단체 회원들은 북에 대한 일상을 더 알고 싶어하고 흥미를 느낀다.

### o 과제

- 찾아가는 통일교육에 대한 반응은 매우 좋았지만 찾아가는 통일교육이 지속적이고 6.15 경기본부로 분위기가 모아지게 하지는 못 했다. 일반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주제를 더 발굴하여 더 알기 쉽고 재미있는 강좌를 더 만들 필요가 있다.
- 6.15경기본부 자체의 강사진, 교육역량 마련을 위해 <청소년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했으나 초반의 여러 문제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중간에 중단됨

## 4> 남북 공동 사업

### ■ 진행사업

#### ① 평양 방문 사업 / 지원사업을 통한 남북공동 사업

##### ◆ 취지

- 북과 지속적인 교류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 함

##### ◆ 경과와 결과

-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남북 공동사업은 추진할 수 없었음.

### ■ 평가

-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풀려야 가능한 사업들로서 올해 진행된 사업이 없다.
- 내년 남북관계에 일정 변화가 생겨 금강산, 개성관광이 시작되면 이 사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 안건 **3.** 2009년 결산 심의의 건 (별지 참고)

[주문사항 : 2009년 결산안을 심의해주십시오.]

# 안건4. 임원 선출의 건

[주문사항 : 임원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윤기석 목사 약력

- 1937년 경남 남해 출생
- 학력 : 한신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졸업  
토론토대학교 녹슨칼리지 수학
- 경력 : 수원교회 40년 목회  
민주화운동 경기지역 대표  
수원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역임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장 역임
- 현재 : 수원교회 명예목사

## 〈임원 선출 인〉

임원	이름	소속	비고
상임대표(1명)	윤기석	6.15경기본부 상임대표	
감사(2명)			
	양홍관	생명살림운동본부 대표	
운영위원(15명)	이성구	6.15고양본부 상임공동대표	
	윤병일	6.15성남본부 상임공동대표	
	박희영	6.15수원본부 상임대표	
	문영희	6.15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	
	박길용	6.15안양본부 상임대표	
	이주현	경기민연련 공동대표	
	송현숙	경기청년연대 의장	
	최현수	민족예술인총연합회 경기지회 지회장	
	안동섭	민주노동당경기도당 위원장	
	배성태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본부장	
	박기춘	민주당경기도당 위원장	
	박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지부장	
	이흥기	전농경기도연맹 의장	
	박남식	한국노총경기도본부 의장	
	여성단체		

# 안건 5. 2010년 사업계획 심의 승인의 건

[주문사항 : 2010년 사업계획안을 심의, 승인하여 주십시오.]

## 6.15 경기본부 2010년 사업계획서

### 1. 2010년 통일정세의 몇 가지 특징

① 북미관계의 큰 진전이 있을 것이며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다.

○ 2009년 북미간의 대결국면은 지난해 8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과 12월 보즈워스 대북특별 대표의 방북으로 대화의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북은 한반도 주변의 안정적 상황을 위해 대화공세를 적극적으로 펼 것이다. 왜냐하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성과적으로 이뤄내는데 있어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 미국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정책인 ‘핵 없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 2010년 5월에 예정된 NPT평가회의 등에서 일련의 성과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북의 핵폐기에 일정 진전을 내오려 할 것이다.

○ 서로 대화가 필요하다는 북미간의 이해의 일치는 ‘선 북미대화 후 다자대화’ 방식으로 한반도 정세가 대화분위기로 급진전될 것이며 주요 의제는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 문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문제가 될 것이다. 북미 핵대결 20년의 마지막 종착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 지금은 남한 정부가 북미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나 남한 정부가 끝까지 발목을 잡는다면 김영삼 정부 때처럼 남을 배제하고 북미관계가 진행될 수 있다.

② 북미관계의 진전으로 남북관계에 약간의 변화는 있겠으나 기본 흐름에 큰 변화는 없다.

○ 이명박 정부는 계속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할 것이며 특히 6.15남측위원회를 무력화 혹은 선별적 탄압을 계속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전쟁 60년을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내 안보분위기를 강화해 할 것이다. 북에게는 대북적대정책과 대화를 병행해 갈 것이다.

○ 북은 2010년 공동사설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동시에 다각적인 왕래와 협력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으며 실제로

2009년에 비밀접촉을 3회 진행한 바가 있다.

○ 북미관계의 진전과 평화협정의 논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보다는 선별적 허가가 심화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며 하반기 들어서서는 개성관광도 기대해 볼만 하다.

○ 이명박 정부는 북미관계의 발목을 잡고 대북적대정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나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본격화 되면 오히려 남북화해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자신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통일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의 주요한 기제는 북미간의 평화협정논의의 진척 정도와 6월 초에 있을 지자체에서의 승패가 될 것이다.

### ③ 단합된 6.15세력의 힘이 필요하다.

○ 이명박 정부가 통일 논의를 지연시키거나 자신의 성과로 하려는 것을 막고 민족 공동의 이익에 맞는 통일 논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전면적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전면적 이행을 위해서는 6.15세력이 반통일세력의 힘을 압도할 정도로 성장하여야 한다. 그래서 반6.15세력을 최소화시켜내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는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 중간층 등 광범위한 모든 평화통일 역량을 6.15공동위원회에 묶어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15공동위원회는 남북해외가 함께 하는 3자연대운동조직이면서 가장 광범위한 통일역량을 묶어 세울 수 있는 통일운동연대체이기에 가능하다.

○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6.15지지세력의 대거 당선은 남북관계 개선과 6.15공동선언의 전면적 이행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다. 따라서 6월 초에 있을 지자체 선거는 6.15공동위원회에 도 매우 중요한 정치 일정이 된다.

○ 올해는 6.15공동선언발표 1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6.15공동선언 1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치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돌이킬 수 없게 해야 한다.

## 2. 2010년 경기본부 사업 방향

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더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함께 함으로서 고수 이행의 분위기를 높여낸다.

②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각계의 광범위한 평화통일역량을 6.15경기본부에 동참시켜내며 시군본부의 건설에 노력한다.

③ 6.15 공동선언 이행과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교육사업을 보다 활성화해 나간다.

④ 지자체 선거에서 6.15지지세력이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 영역별 사업 내용

## 1> 6.15 공동선언, 10.4선언 지지 이행을 위한 대중 사업

### 1) 대중사업

#### ① 제5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 참여인원 5천명을 목표로 6.15경기본부의 전 조직이 합심하여 만드는 대표적 인 대중사업으로 한다.

#### ② 6.15 공동선언 발표 10주년 사업, 8.15, 10.4선언 3주년 기념사업

- 중앙 행사에 적극적 결합을 하며 시군본부와 부문단체에서 각종 통일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③ 통일백일장 사업

- 청소년 대상의 통일백일장을 한다.

#### ④ 북녘 방문 사업

- 개성관광, 평양방문 사업 등 북을 방문하는 사업 적극 추진한다.  
- 북 지원 사업을 적극 모색한다.

⑤ 기타 월드컵 등 계기를 적극 활용하는 사업을 한다.

### 2) 정책 사업

#### ① 경기지역 통일정책 제안 토론회

- 상하반기 연 2회의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의 통일사업에 실질적 적용과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한다.

#### ② 후보 초청 토론회

-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통일관련 정책, 공약을 제안한다.

### 3) 선전 여론 사업

#### ① 홍보위원회 활동

- 현 12개 지역 언론사에서 경기지역 인터넷 언론사로 확대

#### ②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와 실천 사업 강화

- 반 6.15행위나 반통일적 사안에 대한 정치적 대응을 한다.

## 2> 조직 강화 확대 사업

### 1) 조직 강화 사업

#### ① 집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 매월 진행을 통한 안정적 운영을 한다.
- 조직위원장 둔다.

#### ② 상근역량 추가

- 상근자를 1명 더 추가한다.

#### ③ 연 2회(1월, 8월) 워크숍 진행

- 상하반기 워크숍을 통해 6.15경기본부의 사업검토와 단합을 도모한다.

#### ④ 소식지 발행

- 매월 130부 이상의 소식지를 발행하여 6.15경기본부 고문, 감사, 지도위원, 후원회원, 공동대표에게 발송한다.

#### ⑤ 재정 안정화

- 소속단체의 할당된 후원회원 모집을 통해 후원회원을 대폭 늘린다.
- 고문, 지도위원, 감사의 후원금 확대
- 공동대표를 확충 한다.
- 소속단체의 월회비를 단체의 규모에 맞게 재조정한다.
- 소속단체의 회비 납부율을 높인다.

### 2) 조직 확대 사업

#### ① 시군본부의 건설 확대

- 6.15경기본부 소속단체의 시군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시군 혹은 생활권으로 6.15공동위원회를 건설한다.

#### ② 광역단위 부문단체의 참가 확대

- 정당, 종단, 광역단체를 참여 시킨다.

#### ③ 개인 인사의 참여 확대

- 대학 총장 등

### **3> 교육사업**

#### **① 청소년 평화통일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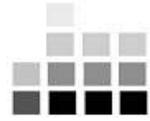
-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으로 평화통일교육을 경기도 초중등학교에서 진행한다.
- 평화통일기행을 함께 결합시킨다.

#### **② 찾아가는 통일학교**

- 작년 25차 진행된 성과를 이어 올해는 40여차로 확대 하여 시민사회단체, 대학 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진행한다.

## 안건 **6.** 2010년 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별지참고)

[주문사항 : 재정확대 계획을 승인해 주십시오.  
2010년 예산안을 심의, 승인하여 주십시오.]



# 참고1. 6.15민족공동위원회 규약

## 1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성격과 목적

- 1)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약칭 6.15민족공동위원회)는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남, 북, 해외의 각 정당,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이다.
- 2)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민족공동행사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민간통일운동을 조직하고 집행해나간다

## 2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조직 원칙과 구조

- 1)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남과 북, 해외의 정당, 단체, 인사들로 구성한다.
- 2)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
- 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서로의 활동을 존중하며, 민족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활동해나간다.
- 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부문별, 지역별 조직들을 둘 수 있다.

## 3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운영

- 1)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와 공동위원장회의, 실무회의를 통해 운영한다.
- 2)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는 연 1-2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1)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는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소집한다.
  - (2)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가 주최하는 주요 민족통일행사들과 공동의 통일운동 방향 등을 토의, 결정한다.
- 3)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는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하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 문제들을 조정하고 합의한다.

- 4)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와 공동위원장회의에서 채택된 결정과 합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실무회의를 운영한다.
- 5)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각기 실정에 맞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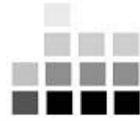
#### **4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공동사무국**

- 1)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공동사무국을 둔다.
- 2)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공동사무국의 설치시기, 구성 및 기타 운영과 관련한 문제들은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의 합의에 따른다.

#### **5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규약의 개정**

규약의 개정은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가 한다.

**이 규약은 2005년 12월 10일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에서 통과 즉시 발효한다.**



# 참고2. 6.15남측위원회 규약

제정 2006년 2월 15일

## 제 1 조 성격과 목적

1.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정당, 종교,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이다.
2. 6.15남측위원회는 남북해외 공동의 민족공동행사와 각계각층 교류협력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통일운동을 조직하고 집행해나간다.

## 제 2 조 운영 원칙

1. 6.15남측위원회는 참가한 단체와 개인의 연대와 합의의 정신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
2. 6.15남측위원회는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와의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실천한다.

## 제 3 조 공동대표회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 ① 공동대표회의

1. 6.15남측위원회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00명 내외의 공동대표로 구성되는 공동대표회의를 둔다.
2. 공동대표회의는 6.15남측위원회의 주요 활동 및 운영 방향을 토의 결정한다.
3. 공동대표회의에서는 상임대표, 명예대표, 운영위원, 공동대표,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한다.
4. 공동대표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공동대표 1/5 이상의 발의나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상임대표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다.
5. 공동대표회의에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6. 공동대표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소속단체의 집행책임자 또는 다른 공동대표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공동대표 중에서 선출된 45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
2.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회의의 안건을 심의, 상정하며 남측위원회의 활동방향과 사업계획,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3.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다른 운영위원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집행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집행위원회를 둔다.
2.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심의, 상정하며 공동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결정한 사항의 집행을 책임진다.
3. 집행위원회를 총괄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두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공동집행위원장단은 집행위원회를 총괄하며 상임대표 또는 집행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4. 집행위원회는 공동집행위원장단, 정책위원회 상임위원 중 1인,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집행위원, 부문계층별 본부의 집행책임자, 광역시도별 본부의 집행책임자, 분야별 위원회의 집행책임자, 대변인실의 집행위원, 사무처장단 등으로 구성한다.

## 제 4조 상임대표, 명예대표, 고문, 상임고문, 감사

### ① 상임대표 및 명예대표

1. 6.15남측위원회는 1인의 상임대표와 약간 명의 명예대표를 둔다.
2. 상임대표는 대내외적으로 6.15남측위원회를 대표하며, 6.15남측위원회의 활동과 운영을 총괄한다. 상임대표는 필요시 자문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고문 및 상임고문

1. 6.15남측위원회는 고문과 상임고문을 두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③ 감사

1. 6.15남측위원회는 업무와 재정을 감독할 2 -3인의 감사를 둔다.

## 제 5조 부문계층별, 지역별 본부

### ① 부문계층별 본부

1. 6.15남측위원회는 부문계층별 본부를 둘 수 있다.
2. 6.15남측위원회의 소속단체나 인사가 부문계층별 본부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공동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부문계층별 본부의 활동 및 운영은 남측위원회의 운영원리와 규약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 ② 광역시도별 본부

1. 6.15남측위원회는 광역시도별 본부를 둘 수 있다.
2. 6.15남측위원회의 소속단체나 인사가 광역시도별 본부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공동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광역시도별 본부의 활동 및 운영은 6.15남측위원회의 운영원리와 규약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 제 6조 정책위원회, 특별위원회, 분야별위원회, 대변인

### ① 정책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직속으로 정책위원회를 둔다.

2. 정책위원회는 6.15남측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한 제반 정책적 내용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며, 토론회와 포럼 등 각종 형식의 정책 사업을 수행한다.
3. 정책위원회의 장은 공동대표 중에서 선출하며, 약간 명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공동대표회의 또는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특정 과제를 원활히 추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3. 특별위원회의 장은 공동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 ③ 분야별 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 총무, 조직, 지역, 홍보, 국제연대 등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설치에 집행위원회의 제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 ④ 대변인

1. 6.15남측위원회는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2. 대변인은 공동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 제 7조 사무처

1. 6.15남측위원회는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는 집행 상의 제반 실무적 과제를 수행한다.
3. 사무처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사무처장과 약간 명의 협동사무처장을 둔다.
4. 사무처장은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적정인원의 상근 혹은 비상근의 간부 및 간사를 채용한다.

### 제 8조 6.15민족공동위원회 남측대표단 구성

1.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 및 공동행사에 참가하는 남측대표단은 공동대표회의에서 정한다.
2. 6.15민족공동위원회 실무회의에 파견될 대표단은 상임대표가 정한다.

### 제 9조 재정

1. 6.15남측위원회의 재정은 소속단체 및 인사들의 회비와 후원금, 행사참가비, 기타 등으로 충당한다.
2. 6.15남측위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 1회 감사를 통해 재정을 감독한다.

### 부 칙

1. 이 규약은 공동대표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발효된다.